

농축산분야 탄소중립 실현 보급형 자동물꼬 '첫 선'

경량화·내구성·편의성·정확성 ↑

농축산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기준 2220만 톤으로 국가 전체 배출량의 약 3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농촌진흥청은 2050 탄소중립 실현 목표에 따라 농축산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중 30.6퍼센트를 줄이기 위한 농업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은 기후변화 주기를 맞아 25일 국립식량과학원 논 재배지(전북 완주군)에서 농업 분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보급형 자동물꼬 시연회를 개최했다.

올해 농진청은 벼 재배를 할 때 지속적인 담수(湛水)를 하지 않고 중간 물떼거나 논물 걸러대기를 하면 온실가스 발생량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착안해 이 자동물꼬를 개발했으며, 4월 22일 지구의 날을 시작으로 28일까지 이뤄지는 기후변화 주간을 맞아 온실가스 감축 캠페인의 일환으로 이번 시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시연회는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

공사,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해 보급형 자동물꼬의 개발 현황과 특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자동물꼬가 물을 넣고 닫는 과정을 참관했다.

이 자동물꼬는 벼 재배 시 중간물떼기나 알개 걸러대기를 자동으로 실행하며 논물을 관리해 주는 기계로 프로그래밍을 입력하면 장작된 벨브가 자동으로 열고 닫히며 물을 대줘 농업인이 일일이 눈에 나가 확인하지 않아도 손쉽게 물관리를 할 수 있다. 일본의 연구에 따르면 물관리 시간을 76.1% 줄이고 물 사용량을 50% 절감하는 효과가 있으며 벼 수량과 품질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시연회 보급형 자동물꼬는 기존 자동물꼬에 비해 기능을 대폭 개량(경량화, 내구성, 편의성, 정확성)하고 대량생산 체계를 갖춰 단가를 80% 이상 낮췄으며 수위, 개폐 이력과 같은 개별 필자의 물 빠짐 특성을 독립적으

로 최적화에 정밀 물관리가 가능하다.

아울러 수위 기록과 물꼬 개폐 이력을 저장할 수 있어 현재 수위에 의존하고 있는 물관리 기술적용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대채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기존의 물관리 기술(중간물떼기 걸러대기 등)을 구현하면 감축한 온실가스 감축량에 해당하는 지원금(1톤당 1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한편 보급형 자동물꼬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저탄소 벼 논물관리기술 보급 시범사업(2022~2024)'과 농진청의 '저탄소 식량작물 재배기술 현장 확산 모델 시범(2022)'에서 부분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며, 여기에 더해 농진청은 시군농업기술센터 담당자와 농업인을 대상으로 보급형 자동물꼬 설치 요령과 사용법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농진청 작물재배관리과 장재기 과장은 "이번 보급형 자동물꼬 개발을 시작으로 향후 자동물꼬에 필요한 출수기 예측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이고 통신 기능 스마트폰 앱도 개발해 종합적인 물관리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대희 기자



25일 완주군 국립식량과학원 논 재배지에서 농업 분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보급형 자동물꼬 시연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농촌진흥청 제공)

벼 농작물 재해보험 판매 시작

농협손보 전북총국 '이양·직파 불능 보장내달 13일까지 가입'

NH농협손해보험 전북지역총국(총국장 김현미)은 올해 벼 농작물재해보험 판매를 25일 개시했다.

이 상품은 6월 24일까지 가까운 지역 농·축협에서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단 벼 보험은 자연재해로 모내기를 못하게 돼 이양·직파 불능 피해를 보장 받으려는 경우 다음달 13일까지 가입해야 한다.

벼 보험은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2009년 도입된 정책보험으로 태풍, 우박, 호우 등을 비롯한 자연재해와 조수해(새나 짐승으로부터의 피해), 화재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는다. 병해충 특약 가입 시에는 흰잎마름병, 벼멸구, 도열병, 줄무늬잎마름병, 깨씨무늬병, 먹노린재, 세균성벼알마름병 피해까지도 보상받을 수 있다.

작년의 경우 장미와 태풍 등 자연재

해 발생으로 도내 2만9,991농가(3만 3,476ha)에서 사고가 발생해, 929억 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등 농작물재해보험이 농가경영의 안전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벼 보험은 정부가 보험료의 44~60%를 국비로 지원하고, 전라북도에서 15%, 지방자치단체에서 15~30%를 지원하며, 올해도 농협중앙회와 지역농축협의 매칭사업을 통해 각 농·축협의 재정여건에 따라 농가부담보험료를 추가로 지원한다.

김현미 총국장은 "올해도 농가 자부담을 중앙회·농축협 매칭사업으로 추가 지원하는 만큼 재해에 대비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은 필수"라며 "지역 농가가 안정적 농업경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국내 김치산업 육성 경쟁력 강화방안 모색

aT, '한국농협김치조합 공동사업법인' 출범식 참석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진진 사장은 25일 서울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열린 '한국농협김치조합공동사업법인' 출범식에 참석했다.

이날 김 사장은 농협 관계자들과 교류의 장을 갖고 국내 김치산업 육성과 경쟁력 강화방안을 모색했다. 김 사장은 "김치 종주국으로서 김치의 위생과 안전성을 강화하고 차별화된 프리미엄 김치를 육성해 한국 김치의 위상을 높이는 데 힘써 달라"며 "앞으로 공사도 김치의 우수성 홍보와 함께 품질 고급화, 해외마케팅 등의 지원 확대로 수출시장을 넓혀 김치 세계화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농협김치는 전국 8개 농협 김치공장을 하나로 통합한 '한국농협 김치조합공동사업법인' 통합브랜드로 100% 국산 농산물을 엄선해 제조하며, 모든 제품은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획득했다. /최대희 기자

도내 중소기업계, 도지사 후보들에 전북경제 회복 제언

탄소중립 기여 기반 수소특화국가산단 지정·조성 지원 등 16개 정책과제 전달

전북지역 중소기업인들이 6월 1일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사 예비후보인 안호영, 김광영 양측에 '전북지역 경제회복을 위한 중소기업계 제언'을 25일 전달했다.

이번 전달식은 중소기업중앙회 전북 지역본부(본부장 전의준)에서 진행했으며, ▲중소기업중앙회 재정무 전북 중소기업회장 ▲전북레미콘공업협동조합 문길천 이사장 ▲전북공예협동조합 진정옥 이사장 ▲전북전주수퍼마켓협동조합 정안선 이사장 ▲전북글로벌유통물류사업협동조합 두완정 이사장 ▲전북육외광고공업협동조

합 정영남 이사장 등 업종별 협동조합 이사장 10여명이 참석했다.

이 제언은 지역 중소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안사항과 그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느껴왔던 현장 애로를 포함해 16개 정책과제를 정리했다. 과제에는 업계의 숙원사업 등이 담겨 있으며, ▲탄소중립 기여기반 수소특화국가산단단지 지정 및 조성 지원 ▲새만금 중소기업 전용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건립 ▲농공단지 입주기업 조직화·활성화 ▲전라북도 조선산업 위기극복 방안 ▲지역 중기제품 판로지원을 위한 협동조합 추천제도 활용 확대 등 전북지

역경제의 장기적인 성장발전을 위한 플랜도 담겼다.

이날 전달식에서 각 예비후보자는 중소기업계가 건의한 정책과제에 대해 검토해 공약과 향후 도정 운영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재정무 회장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시점에, 민선 8기 전라북도에 대한 지역 중소기업들의 기대가 어느 때보다도 크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결되는 지역 중소기업 지원정책 등을 발굴했으나 공약에 적극 반영해 중소기업과 전라북도가 함께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대희 기자

중기청, 생활혁신형 기술개발 참여 소상공인 모집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신재경)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혁신 역량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을 위한 생활혁신형 기술개발 사업'을 25일 공고했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의 기술·제품·서비스와 관련한 혁신 아이디어를 단기간 내 사업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과 진단·기획기관(대학·연구기관)이 연계해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진단·기획기관을 통해 다음달 12일부터 28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최대희 기자

발을 지원한다.

이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진단·기획기관을 통해 다음달 12일부터 28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최대희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경진원, 러·우 전쟁 애로 중기 대상 온라인 수출상담회 진행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대체 수출시장을 발굴하는 온라인 수출상담회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

이 상담회는 다음달 4일까지 도내 러시아·우크라이나 수출 이력이 있는 중소기업 또는 대체 국가에 수출을 희망하는 도내 중소기업이라면 누구

나 신청 가능하며, 6월 8일부터 10일까지 운영된다. 상담회 진행은 개별 사무실 또는 온라인 상담 환경이 부족한 기업들을 위해, 경진원 내 구축된 화상 상담장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상담회는 러시아·우크라이나를 대체할 수 있도록 주변 CIS 국가 및 동유럽 그리고 전라북도 통상거점센터가 위치한 베트남·인도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최대희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maeil.com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 캠페인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일반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자료: 질병관리청